

koreatimes.com

 한국일보

SV세종학당설립에 ‘반발’

입력일자: 2012-11-18 (일)

재미한국학교북가주협의회(이하 협의회, 회장 이정옥)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리콘밸리 지역의 세종학당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.

협의회는 “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세종학당 설립 인가로 기존 한국학교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본국정부의 지원 양분화, 차별화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협의회는 “주말 한국학교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주 지역 4곳 LA, 뉴욕, 워싱턴 DC, 샌프란시스코에 세종학당이 세워졌다”며 “세종학당 신설보다는 기존 한국학교를 지원해 한국어교육을 했다면 중복투자과 필요없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”고 주장했다.

협의회는 “2013년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과 30-40분 남짓한 거리의 실리콘밸리 지역에도 세종학당 지부와 혹은 다른 세종학당이 설립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”며 “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온 주말 한국학교들과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세종학당을 무작위로 설립한다면 한인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협의회는 “세종학당재단과 주말 한국학교의 교육대상이 같음에도 한국학교는 세종학당 지원액의 1/10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”며 “재외동포는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또한 협의회는 “한국학교 학생 구성도 한인 3, 4세 및 외국인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의 격차로 교사 수급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한국학교들이 타격을 받을 것”이라고 난색을 표했다.

총영사관 관계자는 “한국학교와 세종학당은 겹치는 부문도 있지만 교육대상이 다르다”며 “한국어 수요자가 많아지고 한국어교육기관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일”이라고 말했다.

이정옥 회장은 “현재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아 출처는 다르지만 지원 차등 때문에 한국학교의 소명의식은 뒷전으로 밀리고 동포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”며 “본국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재외동포 교육정책을 펴주길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지난 10월 24일 새로 발족한 세종학당재단은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세종학당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교육대상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. SV 세종학당 설립은 내년 2. 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.

<신영주 기자>

Copyright © koreatimes.com All rights reserved. E-mail to webmaster